

특색이 잘 드러나는 건축경관을 창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 대구건축사회는 1년여 동안의 연구와 검토를 통해 이번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 절차 등을 마련했다.

충북 청주건축사회, 사랑의 연탄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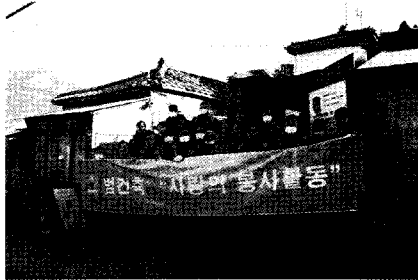


충청북도건축사회의 청주지역건축사회(회장 한재희)에서는 지난 1월 13일 청주시내 어려운 이웃 3가구에 온정을 나누는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건축사 회원 및 가족 18명이 참가해 50만원 상당의 연탄 1,000여장을 3가구에 직접 배달, 기부하는 온정을 베풀었다.

건축계소식

범건축, 연말행사 대신 소외계층 봉사활동 열어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는 구랍 21일 연말, 송년행사를 대신해 소외된 사회계층을 위한 연탄 기부 및 배달 봉사활동을 서울시 중계본동 서울연탄은행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명홍, 원형준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참여해 소외된 사회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김명홍, 원형준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범건축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 문의: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02-538-9966

「간삼파트너스→간삼건축」 사명 및 CI 개편

1983년에 설립,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인 건축 설계 디자인을 해온 간삼파트너스(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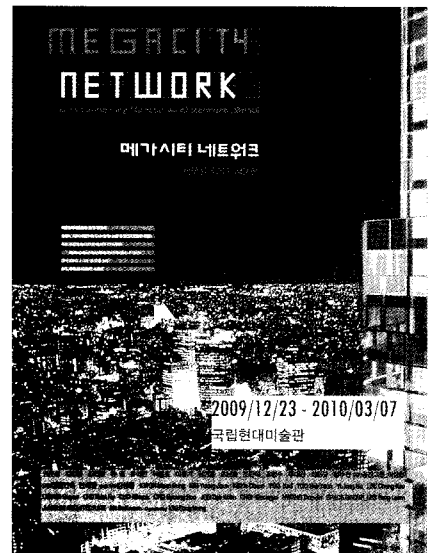
이광만, 대표이사 김태집)가 2010년을 맞이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건축 문화인 양성 등 창업 제2기를 위한 비전 선포와 함께 새로운 사명과 CI를 변경했다.

사명은 기존 「(주)간삼파트너스」에서 「(주)간삼건축」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CI는 「시간을 뛰어넘는 인간을 위한 공간 디자인」이라는 건축적 철학을 담아내면서, 간삼건축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다 전문화된 시간 언어로 표현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 세계 건축디자인 회사들과 견줄 수 있는 자신감을 표현했다.

한편 간삼건축은 지주회사격인 (주)간삼(회장 김자호, 대표이사 오동희)을 설립하여 해외 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등에 전념하는 등 글로벌 기업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 문의: 02-2250-6107

국립현대미술관, 메가시티 네트워크: 한국현대건축 서울展 개최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배순훈)은 구랍 23일부터 2010년 3월 7일까지 '메가시티 네트워크: 한국현대건축 서울展'을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 기획한 최초의 한국건축 해외 그룹전인 '메가시티 네트워크'전은 2007년 말 프랑크푸르트의 독일건축박물관에서 처음 열려 현지 건축계와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이후 베를린의 독일건축센터, 에스토니아 탈린의 에스토니아건축박물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카탈로니아건축사협회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총 168일간의 유럽 순회전을 마쳤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간의 전시를

마무리하는 귀국 전으로 국립현대미술관과 (사)새건축사협의회(회장 이필훈)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전시 주제인 '메가시티 네트워크'는 초고밀도, 고층화가 주도하는 거대 도시의 냉혹한 건축시장에서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창의적 건축가들의 네트워크를 집중 조명한다.

현재 한국의 수도 서울은 인구 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명실상부한 메가시티이다.

전시의 총괄 기획자인 김성홍 서울시립대 교수는 "메가시티 네트워크'는 한국의 거대 도시에 무질서하게 흩어진 건축이 엮어내는 잠재적 연결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김성홍 교수는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도시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건축은 그 중간지대에 분산되었다. 그러나 서양이 갖지 못한 거대도시의 역동성과 건축의 이질성은 역설적으로 혁신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건축문화에 가려졌던 한국 현대건축의 혁신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건축가들이 직면한 문제가 서구의 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과감히 드러내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전시는 한국 도시의 현상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세계 건축의 보편성과 연결시킨 지난 10년간의 완성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외적으로 활동이 주목되는 16인의 참여 건축가들은 신진 건축가에서 중견 건축가, 아틀리에 사무소에서 대규모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각 영역을 대표한다.

이들은 한옥, 고층 아파트, 교회, 주상복합 건축, 사무소, 공공 건축, 미술관, 도서관, 병원, 경기장, 폐광촌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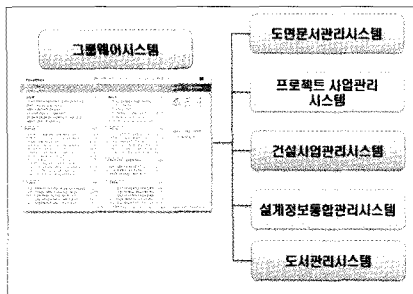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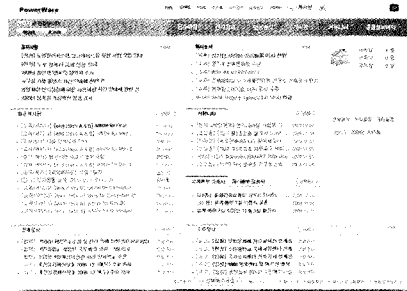
유럽순회전에서는 96개의 알루미늄 금속판 위에 16인의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 32점의 도면, 사진, 모형을 배치하고, 영상작가 안세권이 포착한 서울의 도시 풍경을 전시장 벽면에 스펙터클하게 투사하였다.

이번 귀국 전에서는 유럽전의 배치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여 건축가들의 최신작과 그들의 건축관을 보여주는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히 독일 건축박물관장인 피터 슈말이 내한하여 "유럽의

눈으로 본 아시아 현대 건축"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건축가와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참여 건축가들이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본 행사에서는 매 회 참여건축가 3~4명과 건축비평가 1인이 자신들의 작품과 건축관을 소개하고, 도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을 전개할 것이다.

• 문의: 국립현대미술관 02-2188-6000, www.moca.go.kr

코스팩정보, 건축사사무소 전용 그룹웨어 시스템 'PowerWare' 개발



건축사사무소 정보화 및 BIM 전문회사인 코스팩정보는 건축사사무소 업무에 최적화된 그룹웨어 시스템인 'PowerWare'를 개발했다고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인 그룹웨어와 달리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되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전자결재, 일정관리, 게시판, 커뮤니티, 공용설비에약, 지인관리, 주소록, 사우 정보, 쪽지, 메신저 등이 있다.

이번 개발된 그룹웨어는 코스팩정보의 건축사사무소 업무에 맞게 개발된 설계도면 관리 시스템(EDMS), 설계감리 프로젝트사업 관리 시스템(PMS), 건설사업 관리시스템(PMIS) 등과 연계 활용할 수 있어 향후 건축사사무소 IT화에 대한 일관성 및 확장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격이 타 그룹웨어의 50~60%로 저렴하며, 구축 또는 임대 서비스도 가능하다.

• 문의: 코스팩정보 신경수 이사, 011-9722-1486

KCC, 선박용 도료 'EH2350', 진공 차단기용 세라믹 2009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KCC는 자사의 선박용 도료 'Korepox EH2350' 과 '발전설비 진공차단기(Vacuum Interrupter)용 세라믹' 이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여 선정하는 '2009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에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고 알려졌다.

세계일류상품이란 정부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망한 수출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여 향후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주력상품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해 기술력과 비전을 겸비한 제품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우수상품을 일컫는다.

KCC 선박용 도료 'Korepox EH2350' 과 '발전설비 진공차단기(Vacuum Interrupter)용 세라믹' 이 선정된 '현재세계일류상품'은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5천만 불 이상, 수출규모가 5백만 불 이상,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세계시장 점유율이 10%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후보군 중, 발전설비의위원회에서 경제성, 시장성,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다.

선박용 도료 'Korepox EH2350'은 예폭 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대표적인 방청 도료로서 내염수성, 내마모성이 매우 우수하다.

극심한 해양 부식 환경에서 장기간 보호가 요구되는 해수탱크, 파이프, 창고 등의 철 구

조물에 도장되며, 선박의 수명 및 안전성에 가장 중요한 부위인 밸러스트 탱크(선박의 운항 중 균형을 유지하여 운항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유지함)용 표준도료로 적용된다.

발전설비 진공차단기(Vacuum Interrupter)용 세라믹이란 중/고압 전기(10~70kV)의 정격전압 이상의 전기흐름을 차단해주는 안전장치이다. 진공차단기는 진공 하에서 전류를 차단하고 과전압 시 스파크 발생을 소멸해주며, VI에서 세라믹은 절연 및 진공 소재 역할을 담당한다. VI용 세라믹은 94%의 알루미늄을 원료로 가공하여, 양면에 금속 페이스트를 코팅하여 열처리한 후 니켈을 도금하여 완성하는데, 알루미늄 마탈라이징은 알루미늄 재질의 고온 소결 세라믹에 금속을 접합시키는 기술로 기술 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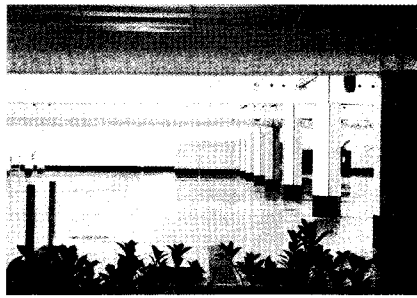
KCC, 전천후 배관 보온단열재 ‘그라스울 방수카바’ 및 초속경화형 폴리우레아 도료 ‘하이퍼우레아’ 출시



건축자재 전문기업 KCC가 출시한 ‘그라스울 방수카바’와 ‘하이퍼우레아’를 출시했다.

먼저 ‘그라스울 방수카바’는 투습 저항성과 취급 용이성을 모두 개선한 제품으로 심재 전면을 발수 처리하여 배관누수 및 외부 습기 침투를 완전차단, 투습 저항성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단열성능 유지가 가능한 제품이다. 또한 취급성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그라스울의 섬유경을 줄여 피부 접촉시 따가워지는 현상도 개선했다.

배관 보온단열재는 배관을 피복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라스울 방수카바는 그라스울만의 특징인 불연재료로서 화재안전성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고온에서도 단열성능이 뛰어나고, 배관부식과 습기방지 성능까지 겸비한 전천후 배관 보온단열재이다.

그라스울 보온통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요구되는 단열성능 기준을 충족시키며, 무기질의 불연재료로서 화재 발생 시 확산의 통로를 막아줌으로써 사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건축·산업용 배관 보온단열재이다. 또한 ‘하이퍼우레아’는 2액형 제품으로 주제(PTA : Isocyanate prepolymer)와 경화제(PTB : Polyamine)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분 이내에 경화되고 하루가 지나면 차량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반응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장 장비인 붓, 롤러, 일반 스프레이로는 작업할 수는 없고 주제와 경화제가 스프레이건 끝에서 충돌 혼합하여 분사되는 방식의 폴리우레아 전용 도장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해야만 도장이 가능하다.

‘하이퍼우레아’는 용제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스프레이 분사 방식이므로 바닥, 벽면, 천장 등 모든 부위에 적용이 가능하다. 출시 제품으로는 바인더 내에 우레아 결합만을 가지고 있는 순수 우레아 PU295A, PU285A 제품과 바인더 내에 우레아와 우레탄 결합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HB195A 제품이 있으며 콘크리트 건축물의 방수, 바닥 방식재로 적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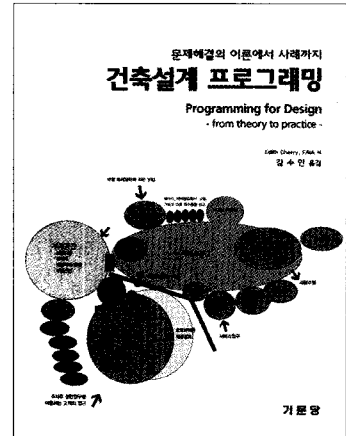
기존 우레탄 방수재에 비해 경도, 인장강도, 인열 성능 등 모든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고 내수성이 강해 우레탄 방수재를 적용할 수 없었던 저수조 등 침수 부위에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탄성을 지니고 있어 콘크리트 소자의 균열을 보완하여 탄성이 없는 에폭시 마감재의 단점을 극복했다.

• 문의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신간안내

건축설계 프로그래밍



Edith Cherry, FAIA 저 | 김수인 역 | 392쪽 | 기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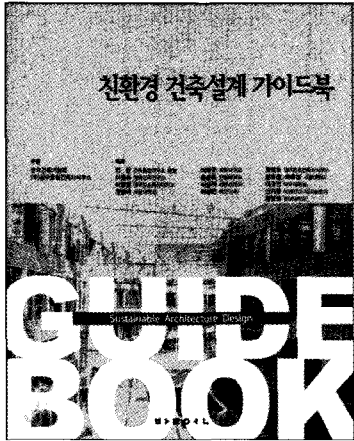
이 책에서 저자는 건물 이용자들을 위한 설계를 강조하면서 건축하는데 있어 목표설정, 정보수집과 분석, 콘셉트 개발, 프로그램통합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에 관한 검증된 전략과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 응용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데, 내용 중에서 많은 사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또한 각 단계마다 4가지 연구를 통해 여러분이 독자여러분이 선택한 프로젝트를 차분히 실행해 나가도록 돕는다.

이 책은 이미 건축설계의 프로세스를 대강 배운 건축학과의 고학년 단계나 건축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은 건축가나 계획가를 대상 독자로 하고 있다.

• 문의 : 02-2295-6171~5

친환경건축설계가이드북



김원외 13명 저 | 424쪽 | 도서출판 발언

이 책은 한국건축가협회가 지난 2008년 2월 '친환경건축선언' 후 3차례의 국제심포지움을 통한 연구의 성과물로서 친환경건축을 실현하고자 하는 건축설계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발간됐다.

따라서 필진의 구성도 친환경건축 관련 학계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1장은 친환경건축의 개념 및 기후변화와 생태학 등 이론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2장은 친환경건축재료와 에너지 그리고 자연자원 등 친환경건축 설계요소를, 3장에서는 친환경건축을 구현하기 위한 기법과 단계계획 기법 및 인증제도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건축의 친환경 요소 등을 수록했다.

• 문의 : 02-929-3546

시간으로서의 건축



문정필 저 | 288쪽 | 도서출판 대가

신간 '시간으로서의 건축'은 부산에서 AK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문정필 건축사가 집필한 책으로서 현재 그는 '건축과 도시의 시간'에 관한 이론을 전개, 실무에 적용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은 근대건축과 현대건축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시간건축을 배경으로 시간개념의 생성과 발전을 그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건축에 개입된 시간은 난해한 점이 있어서, 책의 앞부분에는 건축을 둘러싼 환경적 시간과 지구의 생물에 깃든 시간의 비밀을 흥미롭게 풀어가면서 건축의 시간에 서서히 접근하여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풀어냈다. 또한 뒷부분에는 건축에 대한 시간을 넘어 도시에 축적된 시간으로 확장하여 건축과 도시가 연속되는 시간개념도 설명하고 있다.

• 문의 : 02-305-021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9-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0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6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6-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용문구건축사회/357-6833 · 중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6-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0-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점/(042)841-5725 · 청양지역회점/(041)942-58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철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8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원시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